

고등학교 ‘평준화’ 배정과 경쟁 선발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태중(중앙대)[†]

< 요약 >

이 논문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안에 공존하고 있는 ‘평준화’ 배정(소위 ‘추첨 배정’) 방식과 경쟁 선발 방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두 선발/배정 방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져 온 바, 이 연구는 이런 통념적 가설을 검토한 셈이다. 분석은, 관련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평준화정책 적용 여부와 특수목적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 진학 여부가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고찰하는(회귀분석)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서로 다른 영향이 가정되므로, 1차(2003년, 중학교 2학년 시기)에서부터 5차(2007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이루어진 종단적 조사 결과를 시기별로 모두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평준화 선발 방식과 경쟁 선발 방식이 적어도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평준화 배정이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쟁 선발은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두 방식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이나 가정 배경 등이 비슷한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평준화 배정으로 진학하건 경쟁 선발로 진학하건 사교육비 지출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문제’로 주목하지 않고 통제에만 동원한 많은 관련 변인들의 작용, 특히 지역 변인으로서 인구가 보이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탐구가 필요하다고 숙제를 남겼다.

주제어: 사교육비, 평준화정책, 입학제도, 전형방식

[†] 교신저자: 강태중(156-75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tjgahng@cau.ac.kr)

I. 머리말

이 연구는 ① 학생을 학교에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식과 ② 학교가 학생을 경쟁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안에 공존하고 있는 두 방식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경향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려는 것이다. 두 방식이 우리나라 입학 전형 제도 논의에서 흔히 거론되는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 연구의 시도는 입학제도와 사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인 시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입학 전형 제도가 사교육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념이다. 사교육이 주로 진학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행해진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진학 경쟁의 규칙을 규정하는 입학 전형 제도가 실지로 사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럽다. 그래서 일상적인 교육 논의에서는 물론 사교육 관련 정책 논의에서도 입학 제도와 사교육의 관계는 으레 밀접하게 엮인 것으로 간주된다.

입학 전형 제도와 사교육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여겨지고 또 중요하게 논의되는 데 비하여,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가 논의에 동원되는 예는 드물다. 입학 전형 제도가 사교육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종종 사변적으로 추론되는 데 그친다. 예컨대, 추첨 배정 방식은 경쟁을 소거할 터이므로 사교육 행위를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성적순 사정 방식은 치열한 경쟁을 가져올 터이므로 사교육 행위를 더 부추길 것이라고 가정하는 식이다.

입학 전형 제도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그런 작업에 알맞은 데이터가 부족한 데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입학 전형 제도는 대체로 전국에 표준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전형 제도의 영향을 확인하려면 전형 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종단적인 자료는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에 와서 사교육 조사가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이런 조사 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하여 사교육 추이를 살필 수 있고, 실지로 이를 근거로 제도의 영향을 가늠하기도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김미숙 외, 2006). 그러나 이런 연구를 통해 파악하게 되는 연도별 사교육 변화에는 입학제도 외에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그 변화를 통해 제도만의 영향을 순수하게 분리하여 입증하기는 어렵다.

종단적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 연구자들은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사교육 서비스업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입학 전형 제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조사하는 방식으로 그 제도의 영향을 밝히려고 시도하기도 한다(김미숙 외, 2006).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때 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답은 입학 전형 제도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실지로 학생이나 학부모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새로운 사교육 행위로 대응하기 마련이며, 사교육 서비스업자들 역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마련이다. 조사 결과는 이와 같이 필연적인 대응(또는 적응) 행위들을 드러냄으로써 입학 전형 제도가 사교육 행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조사로 포착한 사교육 행위 변화는 입학 전형 제도가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 지속되었을 사교육 행위 상태와 비교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비교 없이 응답자가 대답한 사교육 행위 변화를 모두 새로운 제도의 영향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장이 된다. 이를테면, 입학 전형 제도에 논술고사가 새롭게 도입되었을 때, 논술 사교육이 새롭게 부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논술고사 도입이 없었다면 내신 성적을 위한 사교육에 투입되었을 비용이 논술고사 도입 때문에 논술 사교육으로 방향을 튼 것에 불과하다면, 논술고사를 도입한 입학 전형 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어느 정도 우회하여 입학 전형 제도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여지는 이른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관련해서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책의 적용을 전후한 종단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른 여건이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통제된' 조건에서, 적용 지역의 사교육 행위가 비적용 지역의 사교육 행위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때 차이를 정책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추이는 특정한 입학 전형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마치 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조하듯 고찰할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한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유지되어 오는 동안 정부는 그 정책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취지에서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 그리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왔다. 이들 학교는 평준화정책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경쟁을 전제한 입학 전형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이원적인 상황에서, 이를테면,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와 같은 경쟁 선발 학교에 진학하는(또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사교육과 관련해서 행위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한다면, 경쟁 선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사교육을 더 부추길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술고사를 도입하는 사례를 들어 얘기했듯이, 이와 같이 비교할 때 특정한 제도가 사교육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그 제도 도입 없이 현상 유지된 상태에 견주어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실증적으로 좀 더 타당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환경이 주는 이와 같은 이점을 활용하여,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입학 전형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두 제도적 방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평준화' 배경(추첨 배경) 방식과 경쟁 선발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만들어 주는 환경을 활용한다는 것만으로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뒤에 선행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정리하게 되겠지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사교육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변적인 논의도 활발하였지만, 실증적인 분석 역시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기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고, 또 좀 더 타당한 분석을 통하여 기존 논의에서 제기한 쟁점들을 풀어가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사교육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공헌을 확장하려는 노력은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평준화정책의 고유한 영향을 분석해내기 위해 간섭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해낼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테면, 평준화 배정 방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일은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지역 간 차이에는 정책 적용 여부만이 아닌 다른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개입해 있기 마련인데, 이 제3의 요인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평준화정책은 또한 장기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평준화정책 기조 안에서 시행하는 경쟁 선발이나 추첨 배정의 전형 방안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 양상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별 학생집단 구성에도(이를테면, ‘평준화’로 인한 이질적 구성 또는 경쟁 선발에 따른 동질적 구성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데이터가 불가결하다.

이 연구는 이상의 두 방향에서 진척을 보이고자 시도한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년간의 종단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며, 제도 효과에 개입하는 간섭요인을 좀 더 엄밀하게 통제하여 입학 전형 제도의 고유한 영향을 포착하려고 시도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1. ‘평준화’ 배정과 사교육비 지출

이른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핵심은 정해진 학군을 단위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학교별로 고르게 배정하는 데 있었다(민관식, 1975). 학교별로 교원이나 시설 설비 등의 질이 비슷하도록 하는 방안들도 평준화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런 측면의 평준화는 학교별로 학생 수준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다. 학생들을 무작위로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학교별 학생 수준 차이를 없애고자(‘평준화’하고자) 할 때, 학교간 여건 차이가 남아 있다면 무작위 배정에 대한 반발이 제기될 터였기 때문이다. 교원이나 시설 설비 등에서의 학교간 평준화는 학생 평준화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평준화를 위한 학생 배정 방안¹⁾은 정책 도입 초기부터 사교육 행위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1)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학생 배정 방식은 흔히 ‘추첨 배정’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엄밀하게 볼 때 그 배정 방식은 무조건적인 추첨 방식이 아니며,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보아 평준화정책의 학생 배

(입시제도연구협의회, 1973). 평준화는 곧 고등학교 서열을 없애는 작업을 뜻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도입 당시 현저했던 고등학교간 서열은 극심한 입시 경쟁을 야기하고 있었다. 평준화는 이 경쟁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경쟁에 따르는 사교육의 필요를 제거해 줄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사회적으로도 대체로 수긍되었다.

학생 평준화를 통하여 학교 서열을 파괴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정책 도입 시기부터 제기되었다. 평준화된 학교 내 학생 구성은 서열화 되었을 때에 비하여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학교내 학생간 성취 격차는 평준화되면서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학급의 이질성을 증대시키고 수업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하나의 표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수업은 학급을 구성하는 학생들이 동질적일 때 쉽게 그 표준을 맞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 비하여, 학생들이 이질적이면 어느 수준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든 그 수준과 거리가 있는 적지 않은 학생들을 수업에서 소외시키게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와 같이 평준화정책 아래에서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사교육 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소외된 학생들이 학교 밖 사교육에서 그 충족의 대안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특히 1990년대 후반 이른바 '공교육 붕괴론'이 퍼지면서 더욱 일반화되어 갔다. 붕괴되었다고 비판될 만큼 부실한 학교 교육이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사교육에 대한 대책을 '공교육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10년여의 정책 문건이나 연구보고서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예컨대, 과외교습대책위원회, 2000; 이종재, 2004). 이때 평준화정책은 공교육 부실을 가져온 원천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이주호·홍성창, 2001).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학교 교육 부실을 초래하여 사교육 수요를 키웠다는 추론은 실증적으로 검증되기도 하였다(이주호·홍성창, 2001; Yoon Ha Yoo, 2003; Taejong Kim, 2004). 평준화정책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차이는 평준화정책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들이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주장과 분석 결과에 대한 반론과 반증도 적지 않다(김현진·최상근, 2004; 강상진 외, 2005; 채창균, 2006). 이 연구들 역시 평준화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 보이는 것은 그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정) 등이 평준화 비적용 지역에 비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더 높게 할 요인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예컨대, 학생의 개인 특성, 가정배경, 지역의 도시화 정도 등)을 통제하고 나면, 평준화정책 적용과 비적용 지역간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진다고 보고한다.

정 방안은, 학생들의 학교 선호나 종교 그리고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조건을 지역 형편에 따라 감안하면서 가능한 한 평준화의 취지를 살려 학생을 학교별로 배정하려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그 방안들을 일괄하여 '평준화 배정' 방안이라고 부른다.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상반되게 보고하는 연구들은 일차적으로 서로 성질이 다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그 결론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포착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를 찾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머리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을 비교한 결과가 그 지출에 대한 평준화정책의 효과를 순수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분석상의 통제를 엄밀하게 해내는 데 관건이 있다.

한편,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서로 다른 학교 교육 국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 두 주장은 ‘평준화 배정’의 파급효과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국면에 대해서는 서로 달리 보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여줄 것이라는 주장은 평준화 배정이 고등학교 입학 경쟁을 완화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감축 효과는 중학교 단계에서 나타나게 된다. 반면, 사교육비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평준화 배정이 학교 교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평준화 배정의 결과로 학생 구성이 이질화 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증대 효과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평준화 배정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그 분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를 포괄하여 종단적이면서 대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석들은 대체로 고등학교 단계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강태중(2008)과 그의 분석을 재검토한 김현진·박균달(2008)이 예외적으로 중학교 단계에 주목했지만, 분석 데이터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학생과 가정 그리고 지역의 간접변인에 대한 통제가 좀 더 엄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두 연구는 분석 모형과 대상을 서로 달리 설정함으로써, 제3의 연구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이렇게 볼 때, 고등학교 평준화 배정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를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는 종단적 분석이 필요하다.

2. 경쟁 선발과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입학 전형 제도의 영향력은 그 제도가 빚어내는 경쟁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여겨진다. 치열한 경쟁을 낳는 제도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자극할 것이라고 본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당초 ‘추첨 배정’의 방안을 통하여 이런 경쟁의 강도를 원천적으로 약화시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평준화정책의 추첨 배정 방안과 그 취지는 정책 도입 이래 꾸준히 비판받아왔다. 특히 학교 선택을 제한하고 경쟁을 소거함으로써 평준화정책은 공교육을 침체시키고 수월성을 약화시켰다고 비판 받았다(예컨대, 이주호, 2002).

평준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누적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에 따라 평준화정책 적용을 해제하기도 하고, 평준화 배정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경쟁 선발 방안을 채택할 수 있는) 학교들도 늘거나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다(강태중, 2003; 강영혜 외, 2005). 평준화 배정에서 예외가 되는 학교들은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으로 확대되어 갔고, 이 학교들

은 소위 '명문학교'로 부상하여 진학 경쟁의 표적이 되었다.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도 진학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연히 사교육 문제도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특목고'나 '자사고'나 하는²⁾ 소위 명문 학교들이 경쟁 선발의 방안을 채택하게 되면서, 이 진학 경쟁을 겨냥한 사교육비 지출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학교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마저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사교육비 지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고등학교 평준화 배경 방식과 병행되고 있는 경쟁 선발 방식이 과연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기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분석되지 못했다. 정부가 경쟁 선발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나 사교육비 지출액이 더 높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학생들과 가정배경 등의 조건이 비슷하지만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지는 않는 학생들과 엄밀하게 비교하지 않고는, 그들의 높은 사교육 참여나 투자가 순수하게 특목고에 대한 진학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 자료에는 데이터나 분석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생략되어 있어, 엄밀한 분석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쟁 선발이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예상은 통념적으로 충분히 수긍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 성적 경쟁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경쟁 선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의 존재가 독립적이고 부가적으로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효과를 내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 특성이나 가정 배경 등 관련된 모든 조건에서 동등하지만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하려는지 여부에서만 다른 두 집단이 있다고 가정할 때, 과연 두 집단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그런 계획이 없더라도 지출했을 수준의 사교육비를 여전히 지출하고 있을 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문건도 상대적으로 가정 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희망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바, 이런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항상 평균 수준보다 높다. 따라서 이들의 사교육비 규모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경쟁 선발이 사교육비 지출에 부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앞 절에서 개관한대로, 평준화 배경 방식이 고등학교 교육의 부실을 가져와 사교육 수요를

2)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범주에는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계 고등학교와 예체능계 고등학교도 포함된다. 그러나 입학제도가 사교육 문제를 논란하는 맥락에서 '특목고'를 언급할 때는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포함)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 구분 않고 같은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통념적 경향을 그대로 용인한다. 경쟁 선발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서, '특목고' 또는 '특목고/자사고' 등의 표현이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 되는 상태로 두었다.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경쟁 선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교육 수요를 줄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쟁 선발이(즉, 경쟁 선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것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을 오히려 줄여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이 정리하고 보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상황에서 경쟁 선발은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그 지출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평준화 배치의 경우에 예상되는 과급 효과와 교차하는 양상이다. 두 경우 모두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한 가정들이다.

III. 연구 문제와 방법

1. 연구 문제

이 연구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맥락에서 빚어진 두 입학 전형 방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함께 들어 있는 ① 평준화(추첨) 배치 방식과 ② 경쟁 선발 방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려는 것이다.

통념적으로 평준화 배치 방식은 중학교 단계에서 고교 진학 경쟁을 약화시킴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구성의 이질화로 인한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 장에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정리하였듯이, 기존 분석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고등학교 단계의 분석들은 통념적인 기대를 뒷받침해주는(사교육비 지출을 증대시킨다고 확인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기대를 부정하는 연구가 있다.

중학교 단계의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중학교 3학년 시기를 분석한 강태중(2008)은 통념적인 기대에 어긋나는(고입 단계 평준화 선발이 중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낮추어 주지 않는 듯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진현·박균달(2008)은 강태중의 분석을 다른 모형으로 검토하여 다소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전자는 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을 다소나마 부추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비하여, 후자는 평준화의 영향 자체가 미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평준화의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좀 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셈이다.

경쟁 선발 방식은 평준화 배치 방식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중학교 단계에서는 진학 경쟁을 자극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경쟁 선발 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적어도 그 학교에 재학하는 학

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시켜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엄밀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기존의 정부 분석은 중학교 이하 단계에서 그런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고등학교 단계의 분석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가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① 고등학교 입학에서의 '평준화 배경' 방식이 중학교 단계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을 증대시키는 영향을 미치는가?

이 문제는 실제 분석의 맥락으로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 진술할 수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에서(평준화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경쟁 선발'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비교할 때), 중학교 단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낮게 나타나고 고등학교 단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가?

②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선발 전형은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기는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는 경향이 있는가?

이 문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바꾸어 진술할 수 있다.

경쟁 선발 방식을 채택하는 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에 진학하려는 중학생들은 다른 중학생들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런 학교에 진학한 고등학생들은 다른 고등학생들에 비해 사교육비를 덜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가³⁾?

2. 분석 자료와 방법

이 연구가 분석에 이용하는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데이터이다⁴⁾.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두 개의 표집(cohort)을 가지고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표집에 대하여 2003년(중학교 2학년)부터 2007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종단적으로 모아진 자료를 분석한다.

-
-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안에 들어 있는 '경쟁 선발'의 영향을 분석하려고 한다면,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경쟁 선발 전형의 영향뿐만 아니라 평준화 배경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선발 전형의 영향도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둘째 연구 문제에서 이 점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평준화 배경의 영향에 관심을 두는 첫 연구 문제에 비평준화 지역(즉, 그 지역의 경쟁 선발)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반면적(反面的)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증적인 분석(회귀분석)에서 '평준화 배경' 변인과 '특목고/자사고'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면, 비평준화 환경에서의 경쟁 선발과 특목고/자사고의 경쟁 선발의 영향을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다.
- 4) 데이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데이터와 함께 제공하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1-5차년도 User's Guide' 참조.

표집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표하도록 ‘층화다단계집락 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년도 표집은 104학교의 3,449명으로 구성되었다. 2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조사에 성공한 사례수는 차례대로 3,106명, 3,081명, 3,077명, 2,925명이었다. 실제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무응답이나 오류 등의 문제로 줄어들게 되는데, 각 변인별 사례수는 기초통계와 함께 <부록 표-1>에 정리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중학교 2학년 패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거의 모든 학년의 현상을 포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들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서 사교육 관련 분석의 타당도를 높여주리라고 기대된다. 또한, 학교 소재지를 시·군·구 단위로 알려주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추가로 고려하며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관련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료 분석에는 회귀분석(OLS regression analysis)의 방법을 적용한다⁵⁾. 월평균사교육비를 개인, 가정, 학교, 지역 등에 관한 변인으로 설명하는 모형의 회귀분석이다. 이 분석 안에서 평준화 배경과 경쟁 선발의 영향을 관찰하게 된다. 이때 분석에서는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의 시간(학년) 차이를 두어 인과관계를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3학년 때 사교육비 지출을 설명하는 모형에 2학년 시기의 개인 변인들을 투입하는 것이, 설명의 인과관계를 선명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단 모형’을 채택할 경우,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분석 데이터가 중학교 2학년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단 모형과 ‘횡단 모형’(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의 학년 차이를 두지 않는 모형)이 분석 결과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내는지 예비적으로 검토하였다. 두 모형의 분석 결과가 동질적인 경우 횡단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중학교 단계에서 분석을 두(2~3) 학년에 대해 시도할 수 있고, 학년간 추이도 살펴면서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 두 모형의 차이는 미미하여⁶⁾, 분석은 중·고교 5개 학년에 대해 횡단 모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15.0 for Windows’이다.

3. 변인

회귀분석에 투입하는 변인들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며 선택하였다. 평준화 배경과 경쟁 선발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특히 간접변인에 대해서 타당하고 엄

5) 평준화 배경과 경쟁 선발(즉, 학교 수준 변인)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데 분석의 초점이 있으므로, 학생과 학교를 연계한 다층 분석을 시도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청소년패널조사가 고등학교 단계에 이르면 학생들이 속한 학교 수는 1,000개에 가깝게 확대되고, 학교당 학생 수는 대부분 3명 이하로 줄어든다. 다층 분석이 불가능한 조건이다.

6) 지면의 제약으로 여기에 제시하지 않으나, 두 모형의 분석 결과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검토되었다.

밀한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행 연구가 통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시사한 변인들을 데이터가 허용하는 한 포괄하였다. 변인 탐색을 위해 검토한 선행 연구들은 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확인하려 했던 연구들(이주호·홍성창, 2001; 김현진·최상근, 2004; 강상진 외, 2005; 채창균, 2006; 강태중, 2008 등), ②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사교육 참여나 비용 지출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백일우, 1999; 양정호, 2003; 김현진, 2004; 양정호, 2004; 노현경, 2006 등), ③ 가계와 소비에 대한 관심에서 사교육비 지출 요인을 분석했던 연구들(김인숙·여정성, 1996; 유형선·윤정혜, 1999; 박미희·여정성, 2000; 이성림, 2005 등), 그리고 ④ 국가 수준에서 사교육 실태를 조사했던 연구들(한국교육개발원, 2003; 교육인적자원부, 2007; 통계청, 2008; 2009 등)이다.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확인하려 했던 선행 연구들에 비하여 여기에서 통제는 더 강하게 이루어지는 셈이다. 기존 연구들은(예컨대 이주호·홍성창, 2001; Taejong Kim, 2004) 데이터의 제약 때문에 통제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변인들을 충실하게 분석에 동원할 수 없었거나, 특정한 인과모형을 전제 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통제의 포괄성에는 한계를 지니게 되기도 하였다(예컨대, 김현진·최상근 2004; 김현진·박균달, 2008). 비교적 변인이 풍부한 데이터를 새롭게 얻게 되면서 통제를 좀 더 견고하게 시행했던 최근 연구들(예컨대, 채창균, 2006; 강태중, 2008)도 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하는 주력하면서 포괄적인 통제에는 미진한 여지를 남겼다. 이 연구에서는 이 최근 연구들에서 좀 더 나아가, 학생 개인의 학업과 심리적 변수(성적, 특목고/자사고 진로 여부, 경쟁의식 등), 가정의 문화적 경향(성취 압력, 진로 관심 등), 지역의 인구(사교육 시장 형성에 필요한 경제 규모) 등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좀 더 엄밀한 분석을 시도한다.

투입되는 변인들에 대해서는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가. 종속 변인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단위)의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 값이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구 조사를 통해 얻어졌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조사된 값을 각 학년별 분석에 투입한다.

나. 독립 변인

독립 변인은 크게 네 범주로 나뉘어 있다. ①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두 양식을 나타내는 변인, ② 학생 특성 변인, ③ 가정배경 변인, ④ 학교/지역 변인이 그 범주이다. 독립 변인들은 범주별로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1)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양식을 나타내는 변인

먼저 투입하는 변인은 여기 분석의 표적인 ① 평준화 배경과 ② 경쟁 선발의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변인이다. ① 평준화 배경은 매 학년 학생이 재학한 학교의 소재 지역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더미 변인(dummy variable)으로 나타내진다. ② 경쟁 선발은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중학생)나 재학하고 있는 경우(고등학생)를 가리키는 더미 변인으로 나타내진다. 학생의 응답에 근거한 변인이다.

2) 학생 특성 변인

두 번째 단계에 투입하는 변인들은 학생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아래 여섯 변인이다.

① 성(gender): 남학생에 대한 더미 변인(여학생이 기준 변인)이다. 1차 조사(중학교 2학년) 때 얻은 응답 결과에 근거했다.

② 장자(長子): 맏이에 대한 더미 변인이다. 아들딸을 불문하고 첫째 자녀인 경우를 가리키며, 중학교 2학년(1차 조사) 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구 조사 결과에 근거했다.

③ 성적: '100-전교 성적 백분위'로 산출한 점수이다. '전교 성적 백분위'는 매 학년 조사에서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이다. 무응답인 경우 '반 성적 백분위'로 대체하였다.

④ 희망교육수준: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합니까?”라는 질문에 학생이 응답한 결과이다. ‘중졸’(1점)에서 ‘대학원졸’(5점)까지 분포한다. 매 학년 조사되었다.

⑤ 시험집착: “나는 내일 시험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는 진술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나뉜 답지에 응답한 결과이다. 시험집착이 강한 경우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응답지 순서를 바꾸어 부호화(coding)하였다. 매 학년 조사에서 학생이 응답한 결과이다.

⑥ 학벌인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진술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나뉜 답지에 응답한 결과이다. 매 학년 조사에서 학생이 응답한 결과이다.

이상의 여섯 변인 외에, 고등학교 학년의 분석에서는 ⑦ ‘전문계재학’ 변인을 추가하였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더미 변인이다.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비 지출에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3) 가정 배경 변인

세 번째 단계에 투입하는 변인은 학생의 가정 형편과 가족의 양태 그리고 부모의 관심 등을 나타내는 변인들이다. 모두 8개 변인이 투입된다.

① 아버지학력: ‘무학’에서 ‘대학원 박사’까지 분포하는 응답 결과이며, 1차 가구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이다. 아버지 학력이 무응답이고 어머니 학력만 조사된 경우 이것으로 대체하였다. 학력에 따라 표준적인 교육년수(무학 0, 초등학교 6, 중학교 9, 고등학교 12, 대학교 16, 대학원 석사 18, 대학원

박사 22)로 부호화하였다.

② 보호자직업: 매 학년 가구 조사를 통해 얻은 응답 결과로, 한국 표준 직업분류 코드로 부호화된 것을 여섯 범주(전문 경영, 관리·사무, 준전문 기술·서비스, 숙련 노동, 비숙련 노동, 무직)로 재분류하여 0점(무직)에서 5점(전문 경영)까지 부여하였다. 아버지 직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인 경우 어머니 직업으로 대체하였다.

③ 월소득: 매 학년 가구조사 결과로 얻은 응답이며, 단위는 만원이다. 자연로그 값으로 투입되어서 'ln월소득'이라고 지칭된다.

④ 자택소유: 매 학년 가구 조사 결과로 얻은 응답이며, '집 소유 형태'에 대하여 '자택'에 응답한 경우의 더미변인이다.

⑤ 자녀수: 1차 가구 조사에서 얻은 응답으로, 가정의 총 자녀수이다.

⑥ 전업주부: 매 학년 가구 조사에서 '어머니 직업'에 대한 응답 결과 중 '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의 더미 변인이다.

⑦ 부모진로관심: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많이 한다'(5점)까지 나뉜 답지에 응답한 결과이다. 매 학년 학생 대상 조사에서 얻었다.

⑧ 부모성취압력: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진술에 대하여, '그런 적 없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나뉜 답지에 응답한 결과이다. 매 학년 학생 대상 조사에서 얻었다.

4) 학교와 지역 변인

마지막 단계에서 투입되는 변인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학생의 인식(평가)과 학교 소재 지역의 인구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가 학생과 가구(보호자) 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관련 변인이 취약한 편이다. 선행 연구들(예컨대, 양정호, 2003; 채창균, 2006)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나 수준별 수업 여부 등을 투입하여 사교육비 지출에 미미하거나 다소 의미있게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런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 변인을 학생 조사 결과에서 찾아 투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 변인으로 인구를 투입한 것은, 그 변인이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등으로 분류되는 지역 규모나 도시화 정도의 측면을 함축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기 위한 '경제 규모'도 드러내 주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의 밀집은 경쟁의 문화가 일상적으로 내면화되는 데도 작용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학교 규모가 사교육비 지출에 관련이 있다고 시사하는데(예컨대, 강태중 2008), 이런 결과가 지역 인구(학생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른 교육경쟁 문화나 사교육 시장의 활기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두 변인을 마지막 범주에 포함한다⁷⁾.

① 학교경쟁력: "현재 다니는 학교는 진학에 유리하지 못하다"는 진술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

다'고 대답한 학생에 대한 더미 변인이다. 매 학년 학생 대상 조사 결과이다.

② 인구: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에서 학교 소재 지역의 인구를 만 명 단위(천 단위 반올림)로 잡아 투입하였다. 자연로그 값으로 투입하여, 변인 이름은 'ln인구'이다. 매 학년의 학교 소재지에 대응시켜 투입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의 기초 통계 값(평균, 표준편차)들은 <부록 표 1>에 정리하였다.

IV. 분석과 논의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입학 전형이 평준화 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경쟁 선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경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전형 방식을 달리 적용받는 집단을 나누어 단순히 두 집단이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를 보이는지 계산해보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때 나타나는 차이가 순전히 전형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두 집단 사이에는 적용된 전형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교육비 관련 요인의 차이가 개입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거나 느끼게 되는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사실 두 집단 비교와 같은 단순한 정보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정보가 보여주는 사실은 단순 명쾌하다. 평준화 배정과 경쟁 선발의 경우를 대조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고등학교 평준화 배정 방식을 적용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하려는(또는 진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평균 사교육비 차이가 얼마인지, 이 연구가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계산한 결과이다.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예외 없이 평준화 지역에서 그리고 특목고/자사고 집단에서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차이는 현격하며⁸⁾ 흔히 짐작하는 대로이다.

여기에서 보게 되는 차이를 두고 통념적인 해석은 갈린다. 평준화 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에 대해서는 도시와 시골 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반면, 특목고/자사고 집단과 아닌 집단의 차이에 대해서는 특목고/자사고의 경쟁 선발이 자극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잡음' 요인의 개입을 인정하는 반면, 후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잡음 요인의 개입을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통념적인 인식이 얼

7) 평준화정책이 적용되고 안 되는 지역 사이의 격차로 인한 선택 편향(selection bias) 문제를 감안하여, '지역 변수'를 분석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논문 심사과정에서 받았다. 이에 따라 광역시, 시, 읍면 등의 더미 변인들을 추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 당초 모형을 유지하였다. 추가 모형의 분석 결과는 심사과정에 제출하였었고, 지면 제약으로 여기 제시하지는 않는다.

8) 집단 사이의 차이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수준이다.

마나 타당한지, 과연 평준화 배경과 경쟁 선발이 사교육비 지출에 고유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게 된다.

<표 1>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식이 다른 집단 사이의 월평균 사교육비 차이(단위:만원)

집단 구분		중2	중3	고1	고2	고3
평준화 배정 여부	평준화지역	28.61	28.55	31.89	30.04	30.34
	비평준화지역	20.89	22.85	17.65	15.79	14.27
	차이	7.72	5.7	14.24	14.25	16.07
경쟁* 선발 여부	특목/자사고	38.83	43.00	45.57	60.21	45.22
	기타 고교	24.84	26.37	26.75	24.53	24.41
	차이	13.99	16.63	18.82	35.68	20.81

* '경쟁 선발 여부'에서 중학교(중2, 중3) 집단은 특목/자사고 진학 준비 여부로 나뉜다.

<표 2>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기초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표 1>에서 이미 본 단순한 차이와 닮은꼴이다. '평준화'와 '특목/자사고' 변인의 계수가 통계적 의의를 얻고 있다. 다른 요인을 고려함이 없이 보면, 평준화 배경 지역의 중3학생들이 그 외 지역 중3학생들에 비하여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고 있고, 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향은 다른 관련 요인을 고려하게 되면서 달라진다. 학생 개인 특성을 추가로 고려한 '학생 특성 추가 모형'을 보면, '평준화' 변인의 계수는 큰 변화가 없고 통계적 의의도 유지하고 있지만, '특목/자사고' 변인의 계수는 현격하게 줄어 심지어 음의 값으로 바뀌었으며 통계적 의의도 상실하고 있다. 개인적인 특성이 서로 비슷한 학생들을 비교할 때, 평준화 지역 중3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여전히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고 있지만, 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이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3학년 시기와 조금 다르다. <부록 표 2>에 정리된 분석 결과를 보면, '특목/자사고' 변인의 계수가 '기초 모형'의 경우에 비해 '학생특성 추가 모형'에서 크게 작아지지만, 통계적 의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개인별 특성이 서로 비슷한 학생들에 대해 비교해도, 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향도 가정 배경을 추가로 고려할 때 사라진다. <부록 표 2>의 '가정배경 추가 모형'을 보면, '특목/자사고' 변인의 계수가 크게 줄어들고 통계적 의의도 잃고 있다. 특목고

9) 다섯 학년 시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모두 본문에 보고하며 논의하는 것이 편집상 산만하다고 판단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요약해 줄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시기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 표만 본문에 실고, 나머지 세 학년(중2, 고1, 고2)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 표는 부록에 실었다.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은 학생들이 지닌 개인적 특성과 가정 배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요컨대, 개인 특성과 가정 배경이 비슷한 중학생들을 비교할 경우, 특목고/자사고에 지망하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비를 특별히 더 지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2>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기초모형	학생특성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가정배경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학교/지역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전 통 양 식	평준화	.341 (.060)**	.312 (.056)**	.151 (.052)**	-.222 (.076)**
	특목/자사고	.507 (.207)*	-.006 (.197)	-.125 (.179)	-.133 (.177)
학 생 특 성	성		.267 (.053)**	.175 (.049)**	.164 (.049)**
	장자		.256 (.053)**	.171 (.051)**	.183 (.051)**
	성적		.013 (.001)**	.007 (.001)**	.008 (.001)**
	희망교육수준		.247 (.046)**	.119 (.042)**	.116 (.042)**
	시험집착		.072 (.023)**	.048 (.021)*	.046 (.021)*
	학벌인식		.111 (.023)**	.076 (.021)**	.072 (.021)**
	아버지학력			.027 (.010)**	.022 (.010)*
가 정 배 경	보호자직업			.120 (.028)**	.118 (.028)**
	ln월소득			.814 (.050)**	.787 (.050)**
	주택소유			.223 (.056)**	.277 (.056)**
	자녀수			-.159 (.040)**	-.130 (.040)**
	전업주부			.202 (.048)**	.191 (.048)**
	부모진로관심			.011 (.026)	.004 (.026)
	부모성취압력			.086 (.023)**	.088 (.023)**
학 교 지 역	학교경쟁력				.049 (.050)
	ln인구				.157 (.024)**
R ²		.013	.134	.289	.300

** p < .01, * p < .05, † p < .10

한편, ‘평준화’의 효과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 모두에서 개인 특성과 가정 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 특성과 가정 배경이 비슷한 경우를 비교해도, 평준화 지역 중학생들이 그 외 지역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고 있다. 평준화 배정 방식이 고등학교 입학 경쟁을 완화시켜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마지막 모형(‘학교/지역 추가 모형’)에서 ‘평준화’ 계수의 방향과 통계적 의미도는 반전되고 있다. <표 2> 중

학교 3학년 시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 '평준화' 지역에서 오히려 사교육비를 덜 지출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부록 표 2>의 중학교 2학년 시기 분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평준화'의 계수가 음의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평준화' 계수의 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변인은 학교 소재지의 '인구'이다. 학생 개인 특성과 가정 배경이 유사하고 또 학교 소재 지역의 인구가 비슷하도록 통제하면, 평준화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덜 지출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부록 표 2>의 '학교/지역 추가 모형')도 통계적 의의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경향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면, 평준화 배경은 사교육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려면 '인구' 변인을 통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구 변인을 왜 투입하는지 정당화하면서 언급했듯이, 인구의 밀집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경쟁의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인구가 커지면서 생존 경쟁이 일상화되고 더 격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규모가 확보되는 만큼, 사교육 시장이 더 발달할 수 있고 학생 학부모에 대한 사교육의 유혹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환경이 작용하여, 성적이나 포부 등 개인별 특성이 비슷하고 가정배경이 비슷하더라도, 도시 학생이 시골 학생에 비하여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전반적인 경향을 평준화 배경이라는 전형 방안이 역전시키지 못하지만, 인구의 그런 영향이 만약 없다면(인구 변인을 통제했을 때는),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는 평준화 배경의 효과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연 '인구'가 그런 작용을 하는지 확인해줄 더 직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방법적으로는 인구 변인이 평준화 변인과 불가피하게 중첩되는 점에 대해서도 해명할 필요가 있다. 평준화 지역이 대체로 도시 지역이어서 두 변인의 상관이 크지 않을 수 없다. 회귀분석은 독립 변인들 사이에 상관이 없을 때 안정된 추정을 해낸다. 물론 사회과학 연구의 형편상 설명 변인들 사이의 상관을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는 마땅히 경계하여야 한다. 이른바 공선성(collinearity)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 분석에서 인구 변인은 학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준화 변인과 .75 정도의 상관을 보인다. 공선성의 문제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SPSS가 제공하는 공선성 진단 통계값들이 보여주는 바로는 분석에 심각한 문제를 던지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평준화' 변인이 투입된 후 '인구' 변인에 대한 허용수준(tolerance)이 .4를 상회하여 Menard(1995)가 제시하는 우려 수준(.2)을 벗어나며, 분산확대지수(VIF)도 2.4 정도 수준으로(전체 변인들의 평균값도 1.3 이하 수준) Bowerman과 O'Connell(1990) 등이 제시하는 우려 수준(개별 지수 10 이상, 그리고 1보다 훨씬 큰 평균 지수)을 크게 벗어난다.

이와 같은 요건을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평준화 배경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개인 특성과 가정 형편이 비슷한 학생들이 비슷한 인구의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고등학교 진학이 평준화 배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중학교 3학년들이 경쟁 선발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비해 사교육비를 덜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평준화 배정 방식의 효과(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확증되지 않지만, 고등학교 진학 목전에 있는 3학년의 경우에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보면, 중학교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평준화 배정과 경쟁 선발)의 효과를 예상에 가깝게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가 확인해주는 바는 미미하다.

<표 3>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기초모형	학생특성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가정배경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학교/지역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전형양식	평준화	.977 (.075)**	.871 (.071)**	.672 (.069)**	-.043(.102)
	특목/자사고	.954 (.292)**	.377 (.276)	-.033 (.265)	-.044 (.261)
학생특성	성		-.145 (.068)*	-.213 (.066)**	-.235 (.065)**
	장자		.170 (.068)*	.071 (.068)	.078 (.067)
	성적		.006 (.001)**	.005 (.001)**	.004 (.001)**
	전문계재학		-.667 (.085)**	-.352 (.085)**	-.347 (.084)**
	희망교육수준		.442 (.054)**	.305 (.053)**	.316 (.052)**
	시험집착		.091 (.031)**	.065 (.029)*	.062 (.029)*
	학벌인식		.133 (.038)**	.091 (.037)*	.087 (.036)*
가정배경	아버지학력			.071 (.012)**	.065 (.012)**
	보호자직업			-.015 (.030)	-.012 (.029)
	ln월소득			.675 (.061)**	.600 (.060)**
	주택소유			-.093 (.080)	-.025 (.079)
	자녀수			-.119 (.054)	-.069 (.053)
	전업주부			-.011 (.065)	-.007 (.064)
	부모진로관심			.079 (.040)*	.079 (.040)*
학교지역	부모성취압력			.171 (.033)**	.178 (.033)**
	학교경쟁력				.037 (.066)
	ln인구				.291 (.031)**
R ²		.067	.183	.259	.284

** p < .01, * p < .05

<표 3>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의 ‘기초 모형’ 결과를 보면, <표 1>에서 이미 확인한 바대로, ‘평준화’와 ‘특목/자사고’ 변인의 계수가 선명하게 통계적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다른 관련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면, 고등학교 입학 때 평준화 배정을

받는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 외 지역 고3 학생들에 비하여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목고/자사고에 재학하고 있는 고3 학생들도 다른 학교에 재학하는 고3 학생들에 비하여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단순 비교 결과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때 크게 달라진다. '학생특성 추가 모형'에서는 학생들의 귀속적 요인(성과 출생 서열)과 성적, 교육 포부 수준과 경쟁의식 등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때 '특목/자사고' 변인이 통계적 의의를 잃고 있다. 개인별 특성에서 서로 비슷한 조건인 학생들을 비교한다면, 특목고/자사고에 재학중인 고3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고3 학생들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후 분석 모형('가정배경 추가 모형'과 '학교/지역 추가 모형')에서 가정 배경과 지역 인구 등을 더 통제해나가면, 여전히 특목고/자사고에 재학하는 고3 학생들이 일반 고교 3학년 학생들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 점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 두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록 표 3>과 <부록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대한 분석에서만 '특목/자사고' 변인의 계수가 '학생 특성 추가 모형'에서도 통계적 의의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이후 통제가 강화되면서 그 의의를 곧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수 변화가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까지 가지는 못한다. 즉, 특목고/자사고와 같은 경쟁 선발 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효과를 통해 재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 대한 분석 결과의 뒷받침은 없다. 사교육비 지출에 작용하는 다른 요인들을 더 엄격하게 통제해나가면 '특목/자사고' 변인의 계수가 음의 방향으로 바뀌기는 하지만(고3의 경우만), 통계적 의미를 얻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른바 명문학교로서 그리고 경쟁을 통해 걸러진 동질적인 학생들을 가진 학교로서, 특목고/자사고는 효율적인 교육으로 재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것이며, 따라서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이런 기대가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선발을 통해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한편, <표 3>에서 '평준화' 변인의 계수는 가정 배경 요인을 통제할 때까지('기초 모형'에서 '가정 배경 추가 모형'까지) 줄곧 통계적 의의를 유지한다. <부록 표 3>과 <부록 표 4>에 정리되어 있는 고1과 고2 시기에 대한 분석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의 개인 특성은 물론 가정 배경까지 비슷한 학생들로 통제하고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비교하더라도, 평준화 배경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여전히 그 외 지역 고등학생들보다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모형('학교/지역 추가 모형')의 분석에서 '평준화' 변인의 계수는 통계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학교 소재지의 인구를 통제하면, 평준화 학교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사라지고 있다. 즉, 개인 특성과 가정 배경이 비슷한 학생들이 인구 역시 비슷한 크기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두고 비교하면, 평준화 학교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특별히 더 지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평준화 학교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평준화 학교들이 대체로 인구가 더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셈이다.

중학교 시기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모형에 근거한 분석 결과를 이해하는 데는 ‘인구’ 변인의 역할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앞에서 논급한대로 한 지역(도시)의 인구가 그곳의 경쟁적 문화와 사교육 시장 활기를 대변해주는 변인이라면, 개인 특성과 가정 배경이 비슷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역(좀 더 인구가 많은 지역)의 교육 경쟁 분위기와 사교육적 환경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추론을 받아들이면, 평준화 배정이 학교 교육 부실을 초래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평준화 비판’ 주장에 대해선 회의하게 된다.

같은 분석 결과를 평준화 비판 주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구 요인이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작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평준화 학교의 부실한 교육에 상응해서 일어난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평준화로 부실해진 학교가 사교육 수요를 키웠고, 이 수요에 부응해서 경제 규모가 되는 지역에 사교육 시장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원인은 평준화된 학교의 교육 실패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대안적인 해석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평준화 이전부터 인구가 많은(도시) 지역에 사교육 시장이 더 번성해온 점을 감안하면 그 해석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현재 평준화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사교육 환경이 평준화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시기에 대한 분석은 통념적 예상에서 대체로 빗나간 결과를 내놓고 있다. 경쟁 선발이 학교 교육을 내실있게 만들어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리라는 예상도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평준화 배정이 학교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어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예상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표 3>과 <부록 표 3> 그리고 <부록 표 4>에 정리된 결과들은, 특목고/자사고에 재학한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요인이 되지 않으며, 평준화 배정 학교에 재학한다는 사실이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준화 방식으로 고등학교에 배정되는가 아니면 경쟁 선발을 통해 진학하게 되는가는, 입학 후 고등학생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학업 조건과 가정 배경에서 유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더 사교육에 달려드는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¹⁰⁾. 그리고 비슷한 개인

10) 이런 해석은 사교육(shadow education) 현상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Baker et al.(2001)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사교육을 보충(remedial) 전략(미흡한 학교 학습을 보완하는 전략, 실증 분석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더 이용하는 경향을 가리킴)으로 삼기보다 심화(enrichment) 전략으로 삼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파악되었다. 이때 ‘심화 전략’이란 용어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더 사교육을 받는 경향을 지칭하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사실상 ‘경쟁 전략’이란 말로

특성과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런 지역에서 더 발달한 사교육 환경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추론은 중학교 단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V. 맺는말

이 연구는 고등학교 입학 제도로 채택되어온 평준화 배경과 경쟁 선발 방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등학교 진학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될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평준화 선발 방식이 사교육비 지출을 다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특목고/자사고의 경쟁 선발은 중학생들에게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향은 가정 배경이나 개인적 경쟁력이 유리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지출하는 경향과 중첩되어 있다. 즉, 특목고/자사고의 경쟁 선발이 고유하게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긴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경쟁 선발이 없더라도 사교육비를 더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특목고/자사고를 겨냥하여 그만큼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향이다.

반면, 평준화 배경과 경쟁 선발이 고등학교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 지출 관련 요인들을 통제하고 보면, 평준화 배경이나 경쟁 선발 여부에 따라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경향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준화 배경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것 같지 않고, 경쟁 선발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사교육비를 덜 지출하는 것 같지도 않다. 학생들이 이질적으로 구성되는 '평준화 학교'라고 해서 사교육을 부추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우수 학생들을 동질적이게 선발한 특목고/자사고라고 해서 사교육 수요를 억제해주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존 논의나 연구들의 결론과 다소 어긋난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거나(예컨대, 채창균, 2006, 강태중, 2008), 영향이 있다면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약화시켜 사교육 수요를 야기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예컨대, 이주호·홍성창, 2001; Taejong Kim, 2004). 그러나 이 연구는 중학교 시기(특히 3학년)에 주목할 때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고등학교 시기 분석을 통해서도 평준화가 특별히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지 않다고 확인해준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평준화정책 안에 있는 경쟁 선발 요소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서도 특목고/자사고 같은 선발 전형 학교들에 대한 정책 기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학교들이 소위 '명문 학교'로서 사교육비 수요를 해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바꾸어도 무방한 것이다.

실지로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확인시켜 준다.

이 연구가 평준화정책과 사교육비 관계 논의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는 다분히 데이터의 공로이다. 분석을 위한 통제 변인이 비교적 충실하게 갖추어진 종단적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 이와 같이 유용한 패널데이터들이 최근 여러 경로로 제공되고 있다. 이 데이터들을 좀 더 신중하게 분석한다면 사교육비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논의가 실증적 기반을 더욱 다져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발전된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적어도 숙제 두 가지를 남기고 있다. 하나는, 지역 ‘인구’가 사교육비 지출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해명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때 인구의 영향에 대해서는 가설적으로 추론하는 데 그쳤다. 이런 추론에 대한 검증이나 대안적인 가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하나 숙제는, 이 연구가 입학제도-사교육비 주제에 초점을 두느라,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즉, 통제에 동원된 영향 요인들)의 역학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고찰하지 못했는데, 이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보고한 5년에 걸친 분석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사교육비 지출이 학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 사교육비 지출 경향이 전반적으로 강자(强者)가 더 거세게 우위를 추구하는 형세를 보인다는 점, 학생의 성(gender)이나 가족 내 위치 등도 여전히 사교육비 지출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상진 외(2005). 고교 평준화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혜 외(2005). 고교 평준화정책의 적합성 연구: 실태 분석, 정책 효과의 검증 및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강태중(2003).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관련된 논란의 성격.” 교육정치학연구, 9집 10집 통합본, 1-25.
- 강태중(2008).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영향: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석에서의 차이 비교를 통한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9(2), 137-159.
- 과외교습대책위원회(2000). 과외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종합보고서. 미간행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교육 실태 및 대책. 미간행자료.
- 김미숙 외(2006).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 대입정책과 사교육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37-149.
- 김현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 김현진·박균달(2008). “고교평준화 정책 적용 여부가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3), 251-275.
- 김현진·최상근(2004).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31(1), 365-383.
- 노현경(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97-118.
- 민관식(1975). 한국교육의 개혁과 진로. 배영사.
- 박기백(1998). “사교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재정논집, 13(1), 149-163.
- 박미희·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백일우(1999). “입시과외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7(4), 117-136.
- 양정선·김순미(2003).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사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221-232.
- 양정호(2003). “중학생의 과외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TIMSS-R의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 분석.” 한국교육, 30(2), 261-283.
- 양정호(2004).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요인 분석: 청년패널조사의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 연구.” 제3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발표 논문, 11월 23일.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별관.

- 양정호(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중단적 연구-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행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 유형선 · 윤정혜(1999).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결정요인-일반계 고등학교 과외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59-171.
-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 행위에 대한 경제 분석.” 경제연구, 22(2), 1-31.
- 이종재(2004).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미간행 자료.
- 이주호(2002). 고교 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 고교 평준화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 정책위원회.
- 이주호 · 홍성창(2001). “학교 대 과외: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 경제학연구, 49(1), 37-56.
- 입시제도연구협의회(1973). 고등학교·대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미간행 정부자료.
- 채창균(2006).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2), 163-179.
- 최상근 외(2003).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통계청(2008). 2007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2009).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보도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수탁연구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2005). 고교 평준화정책의 적합성 연구, 연구보고서.
- Baker, D.P. et al.(2001). Worldwide shadow education: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3(1), 1-17.
- Becker, G.S. and N. Tomes(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s1-s47.
- Bowerman, B. L. and R.T. O'Connell (1990). *Linear statistical models: an applied approach* (2nd ed.). Belmont, CA, U.S.A.: Duxbury.
- Kim, Taejong(2004). Shadow education: school quality and demand for private tutoring in Korea.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orea. unpublished material.
- Menard, S. (1995). *Appl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07-006. Thousand Oakes, CA, U.S.A.: SAGE
- Yoo, Yoon Ha(2003). Competition to enter a better school and private tutoring, KDI School working paper series 03-03.

- 논문접수 2009년 4월 30일 / 수정본 접수 6월 15일 / 게재 승인 6월 19일
- 강태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교육기회 균등, 학교 효과, 사교육 행위, 교육정책의 사회학 등에 연구 관심을 두고 있으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대입전형제도, 사교육 행위, 학교 체제 등에 대한 논문들을 출판하였다. 현재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다.

<부록 표 1> 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의 기초 통계(평균, 표준편차, N): 학년별 정리

변인	중2	중3	고1	고2	고3
ln사교육비	2.65 (1.39; 3378)	2.54 (1.52; 3073)	2.25 (1.76; 2896)	2.05 (1.82; 3082)	1.86 (1.86; 2880)
평균화	0.67 (0.47; 3449)	0.67 (0.50; 3188)	0.66 (0.47; 3088)	0.66 (0.47; 3115)	0.66 (0.48; 2905)
특목/자사고	0.09 (0.28; 3428)	0.02 (0.14; 3179)	0.02 (0.14; 3123)	0.02 (0.13; 3123)	0.02 (0.12; 2965)
성	0.50 (0.50; 3449)	0.50 (0.50; 3449)	0.50 (0.50; 3449)	0.50 (0.50; 3449)	0.50 (0.50; 3449)
장자	0.54 (0.50; 3426)	0.54 (0.50; 3426)	0.54 (0.50; 3426)	0.54 (0.50; 3426)	0.54 (0.50; 3426)
성적	57.44 (27.40; 3339)	59.14 (27.01; 3019)	61.13 (24.90; 2883)	60.46 (24.32; 2901)	61.64 (24.13; 2624)
전문계재학	—	—	0.25 (0.43; 3123)	0.26 (0.44; 3123)	0.26 (0.44; 2965)
희망교육수준	3.97 (0.69; 3449)	4.06 (0.63; 3188)	4.01 (0.64; 3125)	3.96 (0.63; 3121)	3.98 (0.72; 2958)
시험집착	3.17 (1.26; 3449)	3.00 (1.19; 3188)	3.05 (1.17; 3125)	2.99 (1.14; 3121)	2.80 (1.12; 2958)
학벌인식	3.70 (1.25; 3449)	3.73 (1.17; 3188)	3.88 (1.05; 3125)	3.99 (0.93; 3121)	4.07 (0.90; 2958)
아버지학력	4.73 (1.31; 3413)	4.73 (1.31; 3413)	4.73 (1.31; 3413)	4.73 (1.31; 3413)	4.73 (1.31; 3413)
보호자직업	2.69 (0.95; 3444)	2.67 (0.99; 3444)	2.59 (1.08; 3444)	2.53 (1.16; 3444)	2.51 (1.18; 3444)
ln월소득	5.52 (0.60; 3382)	5.56 (0.58; 3382)	5.59 (0.62; 3227)	5.63 (0.62; 3205)	5.68 (0.59; 3154)
주택소유	0.69 (0.46; 3395)	0.73 (0.44; 3077)	0.75 (0.43; 3074)	0.76 (0.43; 3080)	0.78 (0.42; 2940)
자녀수	2.17 (0.64; 3422)	2.17 (0.64; 3422)	2.17 (0.64; 3422)	2.17 (0.64; 3422)	2.17 (0.64; 3422)
전업주부	0.50 (0.50; 3394)	0.50 (0.50; 3395)	0.50 (0.50; 3396)	0.49 (0.50; 3399)	0.49 (0.50; 3399)
부모진로관심	3.22 (1.01; 3449)	3.40 (0.95; 3188)	3.33 (0.91; 3125)	3.36 (0.88; 3121)	3.49 (0.84; 2958)
부모성취압력	3.06 (1.10; 3449)	2.87 (1.05; 3185)	2.91 (1.02; 3124)	2.87 (1.02; 3121)	2.68 (1.03; 2958)
학교경쟁력	0.31 (0.46; 3449)	0.39 (0.49; 3188)	0.34 (0.47; 3125)	0.29 (0.45; 3121)	0.39 (0.49; 2914)
ln인구	4.61 (1.55; 3449)	4.60 (1.55; 3188)	4.57 (1.59; 3088)	4.57 (1.59; 3115)	4.54 (1.58; 2905)

※ () 안은 표준편차와 사례수. ‘—’는 해당 없는 경우.

<부록 표 2>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기초모형	학생특성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가정배경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학교/지역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전 형 영 양 식	평준화	.319 (.051)**	.288 (.049)**	.177 (.045)**	-.013 (.066)**
	특목/자사고	.628 (.085)**	.242 (.084)**	.051 (.076)	.050 (.076)
학 생 특 성	성		.167 (.046)**	.089 (.042)*	.079 (.042)†
	장자		.278 (.046)**	.182 (.044)**	.185 (.044)**
	성적		.008 (.001)**	.004(.001)**	.004(.001)**
	희망교육수준		.176 (.037)**	.088 (.034)**	.091 (.034)**
	시험집착		.124 (.019)**	.082 (.017)**	.081 (.017)**
	학벌인식		.074 (.019)**	.026 (.017)	.028 (.017)†
가 정 배 경	아버지학력			.018 (.009)*	.015 (.009)†
	보호자직업			.097 (.025)**	.095 (.025)**
	ln월소득			.765 (.041)**	.747 (.041)**
	주택소유			.263 (.046)**	.275 (.046)**
	자녀수			-.204 (.035)**	-.189 (.035)**
	전업주부			.123 (.041)**	.116 (.041)**
	부모진로관심			.063 (.021)**	.059 (.021)**
	부모성취압력			.109 (.019)**	.111 (.019)**
학 교 지 역	학교경쟁력				.085 (.045)†
	ln인구				.078 (.020)**
R ²		.030	.121	.294	.298

** p < .01, * p < .05, † p < .10

<부록 표 3>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기초모형	학생특성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가정배경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학교/지역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전 형 양 식	평준화	.826 (.070)**	.730 (.065)**	.578 (.061)**	.126 (.090)
	특목/자사고	.846 (.241)**	.289 (.223)	.023 (.206)	.030 (.204)
학 생 특 성	성		-.008 (.061)	-.082 (.057)	-.100 (.057)†
	장자		.283 (.061)**	.188 (.059)**	.193 (.059)**
	성적		.007 (.001)**	.005 (.001)**	.005 (.001)**
	전문계재학		-1.107 (.077)**	-.751 (.073)**	-.748 (.073)**
	희망교육수준		.318 (.053)**	.136 (.050)**	.139 (.049)**
	시험집착		.057 (.027)*	.037 (.025)	.032 (.025)
	학벌인식		.122 (.030)**	.068 (.028)*	.064 (.028)*
	아버지학력			.036 (.011)**	.032 (.011)**
가 정 배 경	보호자직업			.091 (.029)**	.090 (.029)**
	ln월소득			.789 (.053)**	.758 (.053)**
	자택소유			.152 (.068)*	.188 (.068)
	자녀수			-.162 (.047)**	-.129 (.047)**
	전업주부			.136 (.056)*	.132 (.056)*
	부모진로관심			.135 (.032)**	.132 (.032)**
	부모성취압력			.123 (.028)**	.134 (.028)**
	학교경쟁력				.070 (.060)
학 교 지 역	ln 인구				.182 (.027)**
	R ²	.054	.214	.336	.347

** p < .01, * p < .05, † p < .10

<부록 표 4>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기초모형	학생특성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가정배경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학교/지역 추가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전 형 양 식	평준화	.809 (.071)**	.717 (.065)**	.539 (.062)**	.001 (.091)
	특목/자사고	1.147 (.258)**	.548 (.236)*	.199 (.222)	.200 (.220)
학 생 특 성	성		.007 (.061)	-.057 (.058)	-.075 (.058)
	장자		.199 (.061)**	.114 (.060)†	.119 (.060)*
	성적		.006 (.001)**	.003 (.001)**	.004 (.001)**
	전문계재학		-1.149 (.075)**	-.765 (.073)**	-.770 (.073)**
	희망교육수준		.439 (.055)**	.251 (.052)**	.250 (.051)**
	시험집착		.105 (.027)**	.097 (.026)**	.086 (.025)**
	학벌인식		.041 (.034)	.018 (.032)	.014 (.032)
	아버지학력			.087 (.011)**	.082 (.011)**
가 정 배 경	보호자직업			.075 (.027)*	.078 (.027)*
	ln월소득			.567 (.053)**	.530 (.052)**
	주택소유			.096 (.069)	.159 (.069)*
	자녀수			-.109 (.048)*	-.073 (.047)
	전업주부			.161 (.058)**	.161 (.057)**
	부모진로관심			.133 (.034)**	.125 (.033)**
	부모성취압력			.141 (.029)**	.140 (.029)**
	학교경쟁력				.047 (.063)
학 교 지 역	ln인구				.218 (.028)**
R ²		.052	.216	.317	.332

** p < .01, * p < .05, † p < .10

ABSTRACT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equalizing allocation and the competitive selection in high school admission on spending for private tutoring

Gahng, Tae-Joong(Chung-Ang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two modes of high school admission—equalizing allocation and the competitive selection—on spending for private tutoring. It tested the conventional wisdom on the effects: the decreasing effects of allocation and increasing ones of selection. Utilizing KYPs data set, regression analyses were carried out for five stages from 8th grade to 12th grade.

At the stage of middle schooling(8th and 9th grades), the effects of the two admission mode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While the allocation mode tended to lower spending for private tutoring, the selection mode had the opposite effect. At the stage of high schooling(10th through 12th grade), however, the effects seemed superficial. Control for individual traits and family backgrounds made the apparent effects disappear.

To further this line of research, it is suggested to investigate in detail the working of the variables which are overlooked in this study and function only as control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population variable of school region remained also to be clarified further in substantial terms.

* **Key words:** private tutoring, shadow education, equalization policy, school admission